Macro

한국 수출: 수요 아직 좋음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 3월 수출 +48.3%YoY 증가, 1988년 이후 최고. 일평균 수출 +41.9% 증가
- 전쟁에도 불구 물류 차질 제외하면 주요 품목 수요 둔화 없어
- 빠른 종전 시 3분기 경까지 모멘텀 지속, 한은 수출 전망은 여전히 저평가

수출 증가율 1988년 이후 최고, 역대 최초 월간 수출액 800억 달러 돌파

3 월 수출은 +48.3%YoY 증가해 1988 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800 억 달러를 넘어섰다. 일평균 수출은 +41.9%YoY로 2월 +49.0% 대비 약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매우 강한 모멘텀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에너지 단가 상승에도 공급 차질로 수입 물량이 늘지 않으면서 257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 수출 영향 거의 없어, 수요는 여전히 좋음

미국-이란 전쟁 여파가 이번 수출 데이터에서 일부 나타나기는 했다. 예컨대 대중동 일평균 수출은 -51.3% 급감했고, 품목별로도 일반 기계(-10.3%), 자동차(-2.2%) 등 중동향 비중이 높은 부문들의 수출이 부진했다. 반면 석유화학(+1.2) 제품은 (+)로 돌아섰고, 석유제품은 +48.2% 급증했다.

그러나 중동 쪽의 물류 차질을 제외하면 일단 3월 데이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외 수요를 약화시켰다는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3월 일평균 수출은 10일 단위로 쪼개서 보면, 전체 수출이나 반도체 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국가별로도 주요국 중에서는 아세안(+51.0% → +28.4%) 정도만 둔화되었을 뿐 미국(+40.7%), 중국(+57.0%), EU(+14.1%) 향 수출은 호조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37.3%), 이차전지(+30.2%), 농수산식품(+9.6%), 화장품(+21.5%) 등 반도체가 단연 압도적이지만 그 외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제법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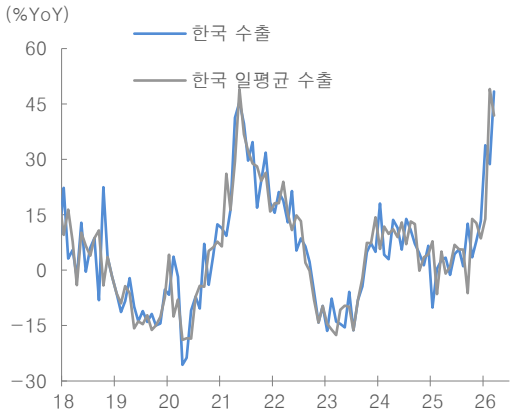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은 일평균 +140.5%로 2월 +201.8% 대비 크게 둔화된 듯 보이지만, 2 월 데이터의 경우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40%의 증가율은 이미 과거의 고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겠으나, 과거 싸이클을 감안할 때 100%대의 증가율을 얼마나 길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전쟁 조만간 종결 시, 한은 수출 전망은 아직도 상당히 과소 평가된 상태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점차 출구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중 사태 진정을 예상한다. 물류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 탓에 4-5 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나, 전쟁 이전의 유동성 기조와 굳건한 AI 수요를 감안하면 3 분기 무렵까지는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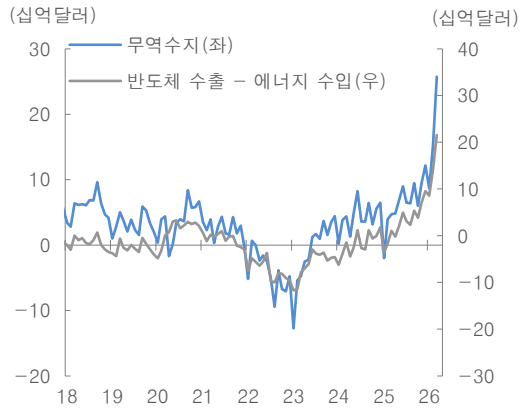
반도체 소매 가격에 대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AI 수요는 아직 변함이 없는 가운데,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한은이 지난 2 월에 전망한 2026년 통관 수출 +12.1% 증가는 아직도 상당히 과소 평가되어 있다.

그림 1. 한국 3 월 수출 +48.3%YoY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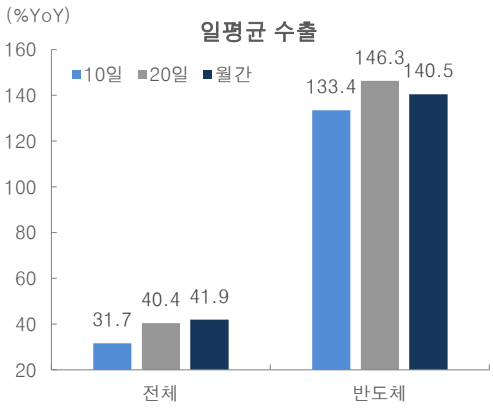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무역수지는 에너지 수입 차질 속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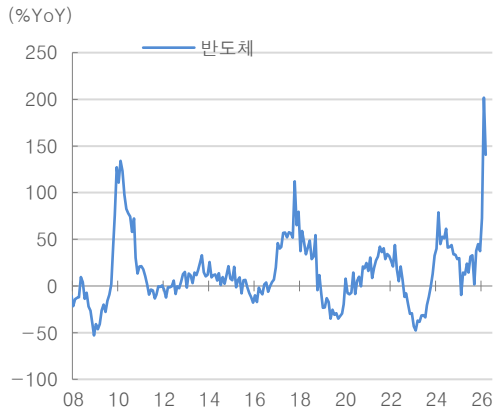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0 일 단위로 보면 전쟁 영향 크지 않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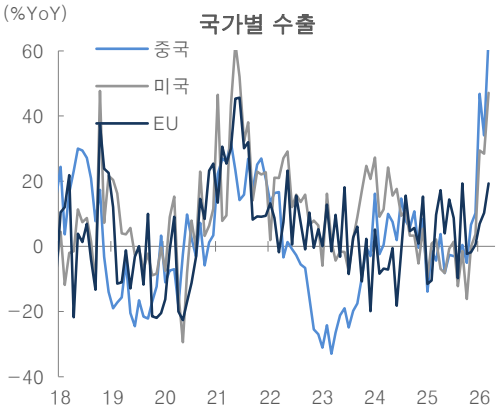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반도체 수출, 100% 유지가 점점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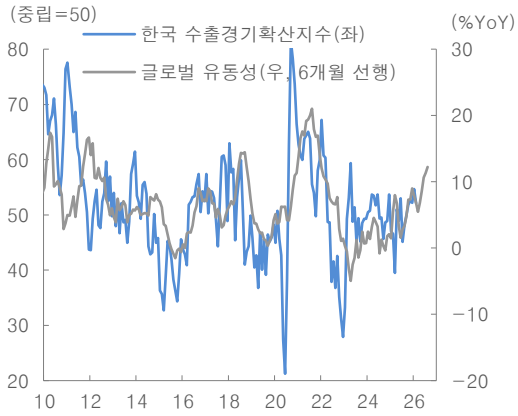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주요국 수출 모두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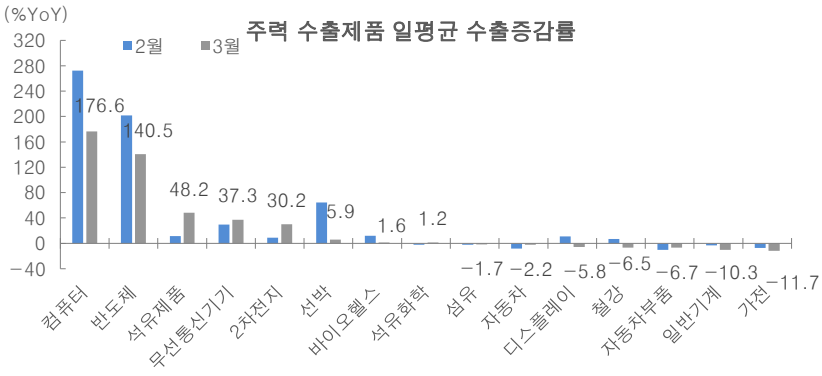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수출 더 좋아질 여지 있어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반도체/컴퓨터 외에도 무선통신기기, 이차전지 등 수출 양호**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이정훈)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